

## 보람있는 걸음

여러해전 11 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어느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게 된 일군들은 걱정에 앞서 놀라움과 죄스러움이 한가득 차올랐다.

소설이 갓 지난 때인지라 날씨는 매우 변덕스럽고 맵쥘다.

더구나 광활한 바다에는 검푸른 파도가 세차게 일고있었다.

바로 이런 날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사업소를 찾아오시였기때문이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물고기잡이실태와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꿈결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그이이시였건만 눈비가 내리고 파도가 높아 고기배들조차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한 때에 사업소에 모신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죄스러움을 감출수 없었다.

그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늘은 참 보람있는 걸음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길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고 하여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는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천만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있어 우리의 행복과 광명한 미래가 꽃피어나고있음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는 잊지 못할 순간이였다.